



BEST of BEST PB '우수PB 명예의 전당' Open

KEB하나은행은 지난 5월 9일 '우수PB 명예의 전당'을 오픈했다. '우수PB 명예의 전당'은 기존에 운영해왔던 '월간 최우수PB에 대한 칭찬 프로그램'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PB들을 격려하고 PB로서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PB사업본부 내에 마련한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2013년부터 실적 우수자를 '월간 최우수PB'로 선정해 현재까지 총 240명의 우수PB를 선발해왔다.

첫 명예의 전당에는 3명의 PB가 주인공으로 올랐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월간 최우수PB'에 10회 이상 선정된 아시아선수촌PB센터 김연주 PB부장을 비롯해 영입1부PB센터 이은정 PB팀장, 워커히 VIP클럽 이은주 PB부장이 영광의 주인공.

이날 명예의 전당 오픈식에는 첫 명예의 전당에 오른 3명의 PB와 함께 자산관리그룹 박종영 부행장, PB사업본부 김성업 본부장 및 PB사업본부 임직원들도 대거 참석해 진심어린 축하를 건넸다.

자산관리그룹 박종영 부행장은 첫 명예의 전당에 오른 PB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월간 최우수PB'로 선정된 PB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부행장은 "이를 통해 전체 PB의 손님 서비스 능력도 향상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PB 명예의 전당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우수PB 명예의 전당'은 '월간 최우수PB' 선정 결과를 매년 말 기준으로 갱신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KEB하나은행은 자산관리 명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손님들에게 차별화되고 앞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실력 있는 우수PB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ㅎ

KEB하나은행은 '우수PB 명예의 전당'을 오픈했다. 2013년부터 실적 우수자를 선발해왔던 '월간 최우수PB'를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글_여경미 기자
사진_임익순 기자



2016 Art Seminar 금융자산으로서의 미술품

최근 피카소와 모딜리아니의 작품이 1,800억과 1,700억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경매로 낙찰되면서 미술품 경매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미술품은 감상과 수집의 가치를 넘어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투자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소더비 인스티튜트 LA에서 예술법과 예술품 경매, 투자를 가르치는 김기범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아트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현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쉽게 변질되지 않으면서 이동과 보관이 용이한 미술품이 새로운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산 안정성을 추구하는 컬렉터들이 많아지면서 100억원 넘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호하는 등 미술시장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2000년 후반부터는 현대 미술에 대한 평가도 새로워져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선호하는 컬렉터들이 늘어나면서 현대 미술품의 관심도 높아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술품을 금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매는 물론 아트 펀드(Art fund), 아트 론(Art loans) 및 개인 재단 설립 등이 있으며 기타 비즈니스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더비 인스티튜트의 입학 관련 정보 및 취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 손님과 현재 미술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손자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근 해외에서도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우리나라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과 2~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ㅎ

최근 고가의 미술품 경매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5월 23일 VIP 손님 30여 명을 초청해 투자를 위한 미술품의 활용방안에 대한 아트세미나를 개최했다.

글_김봉연 기자
사진_임익순 기자